

토요타 회관 : 전시

토요타 회관의 1 층은 5 개의 테마로 나뉘어 있습니다. ‘환경과 감동’, ‘안전과 자유’, ‘생산과 창조’, ‘기업과 사회’, 그리고 토요타 쇼룸’입니다. 각 구역에는 체험형 전시와 정보형 전시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변경됩니다. 또한, 로비에도 몇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기획 전시가 있습니다. 관내는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는 동선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모든 전시물에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해설이 제공됩니다.

‘환경과 감동’ 구역에서는 ‘프리우스’ 같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완전 전기자동차, ‘미라이’ 같은 수소연료 전지차 등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한 토요타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미라이’와 ‘프리우스’의 단면도를 전시해 일반적인 휘발유 자동차와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모터와 엔진의 구조 외에도 토요타가 수년에 걸쳐 어떻게 개량해 왔는지 설명하는 동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콘셉트카 전시 및 토요타가 설계, 건설하는 그린에너지로 운영되는 새로운 도시 ‘우븐 시티(Woven City)’에 관한 코너도 있습니다.

‘안전과 자유’ 구역에서는 토요타의 다양한 능동적, 수동적인 안전기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방문객은 액티브 브레이크와 거리 모니터링 등의 첨단 안전 보조 기능을 가상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통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생산과 창조’ 구역에서는 효율성과 생산성에 관한 토요타의 혁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요타의 기업 이념으로 ‘가이젠’(지속적인 개선)과 ‘가라쿠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가라쿠리’는 직원이 어떤 문제에 대처할 때 심플하고 단순한 기계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장려하는 이념입니다. ‘가라쿠리’의 배경에는 심플한 도구를 조합함으로써 비약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자동화 시스템과는 달리 단순한 구조라면 고장이 나더라도 바로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타가 고안한 적시 생산(Just In Time)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공장에서 생산함으로써 과잉 재고를 창고에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의 기원을 차체 도장과 용접 작업에 대한 체험형 전시를 통해 설명해 줍니다. 또, 그곳에서는 실물 크기의 용접 로봇이 함께 방문객을 맞아주고 있습니다.

‘기업과 사회’ 구역에서는 토요타 기업의 역사와 세계 각지에서 행하고 있는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토요타 초기 상용차 ‘AA형’ 등 토요타의 대표적인 자동차 모형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NASA 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공동 미션을 위해 토요타가 제작한 소형 로봇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토요타 쇼룸에서는 토요타와 렉서스 차량이 정기적으로 교체 전시되는데, 전시에는 TOYOTA GAZOO Racing 의 고성능 모델도 포함됩니다. 쇼룸에서 전시되는 차량은 자주 교체됩니다.

2층에 있는 어린이를 위한 특설 회장에서는 브레이크와 스티어링 등 자동차의 기본 구조에 대한 체험 전시가 진행됩니다. 또한, 자동차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오래된 부품이 어떻게 재활용되는지 등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뮤지엄 습에서는 모든 연령층의 자동차 애호가를 위한 기념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